

## 다산포럼

김정남



## [ 오피니언 ]

무정세월을 토막 내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로운인가 어리석음인가. 어떤 사람은 그런 짓이야 말로 훌륭한 물에 뜻대를 세우는 것과 같아서 더 없고 쓸데 없는 짓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네 인생일이에서는 매년 무슨 날을 정해놓고 그 날을 계기로 지난날을 반추하고 앞날을 다짐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그런 날 가운데 하나가 새해 새아침, 신정이요, 구정 곧 설이다.

예전엔 설이 하나였다. 바로 그 설날이 송구신하는 날이어서, 이 날을 계기로 자신을 새롭게 다듬는 것을 당연한 법도요 절차로 여겼다. 다산은 계해년(1803) 첫날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군자는 새해를 맞이하여 반드시 그 마음과 행동을 한 번 새롭게 해야 한다”고 가르친 바 있다. 옛 사람들은 새해를 맞는 것은 기쁘지만, 어버이가 나이 들어가는 것은 두렵게 여겼다. 이 비슷한 말이 논어 인(仁)편에도 나온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연하인 사는 신정 때 하고, 과세와 세배는 구정 설

날에 하는 것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지금은 이메일로 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맘때쯤이면 연하장이 한창 나온다. 그런데 그 연하장이라는 것이 대부분 인쇄된 것이어서 정이

못하다는 사기 상양열전에서 조랑(趙良)이 한 말을 적어, 동아·조선투위의 후배기자들에게 보냈다. 그 연하장이 그때 고생 하던 후배기자와 민주인사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과 격려가 되었는지 모른다.

주제넘게도 꽤 오래전부터 나도 이를 흉내내서 연하장을 앞앞 일일이 써서 보내는 짓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연하인사장은 어떤 걸로 할까를 놓고 해마다 한바탕 고뇌를 하게 된다. 첫해에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라고 썼다. 유가(儒家)에서 수기(修

## 연하편지

느껴지지 않는다. 서명만 친필로 한 것이 간혹 눈에 띄지만 너무 의례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적어도 제대로 된 연하장이라면 연하의 인사말도 자필로 쓰고, 곁봉의 주소도 친필로 적은데다 우표까지 제 손으로 반듯하게 붙여서 보내야 제격이란 수가 있다. 거기다 연하인사말이 받는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그것이 진정 모두가 받고 싶어 하는 연하장일 것이다.

70년대에 천관우선생이 꼭 그랬다. 78년이던가 그해 정초에, 선생은 엽서에 일일이 봇글씨로 ‘千人之諾諾 與一士之懼懼’(천사람의 좋다는 말이 한 선비의 직언만

己)의 중요한 덕목으로 치는 “새로워라, 날마다 새로워라, 그리고도 또 새로워라” 하는 가르침과 불가(佛家)에서 흔히 쓰는 ‘날마다 좋은 날’을 합성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시작한 연하장 보내기가 해를 거듭하면서 이제는 내가 보낸 연하장을 해마다 모아둔다는 사람도 생겨났다.

몇 년 전에 우연히 김종길선생의 ‘설날 아침에’라는 시를 발견했는데 연하인사말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나는 다음 편으로 되어있는 이 시 가운데 한편을 골라 그 시구와 결맞을 것 같은 사람에게 적어 보낸다. 나 혼자만 좋아하기는 너무 좋고 아끼워 전편을 내 방식으로 조개 여기에 소개한다.

매양 추위 속에 해는 가고 또 오는 거지  
/새해는 그런대로 따스하게 맛을 일이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가 숨쉬고/파릇한  
미나리사이가 봄날을 꿈꾸듯/새해는 참고  
꿈도 좀 가지고 맛을 일이다/오늘 아침 따뜻한 한 잔술과 한 그릇 국을 앞에 하였거  
든/그것만으로도 푸지고 고마운 것이라  
생각하라/세상은 혼난하고 각박하다지만  
/그러나 세상은 살만한 곳/한 살 나이를 더한 만큼/좀 더 작하고 슬기로운 것을 생  
각하라/이무리 매운 주위 속에 한해가 가고  
또 옮기자/어린 것들 잊물에 돌아나는 고운 이빨을 보듯/새해는 그렇게 맛을 일이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이 시의 전 편, 아니면 그 가운데 한 편을 골라 그것을 내용으로 하여 연하인사장을 보낼 것을 삼아 권하고 싶다. 연하인사, 그것도 아름다운 시로 받는 정초의 기쁨이 얼마나 클 것인가.

아주 최근에 나는 또 하나의 주목같은 글귀를 발견했다. 구상선생이 쓴 것으로 새해 연하장에 내가 주종으로 쓰는 글귀임을 고백한다.

새해 새아침이 따로 있다더니/너의 마음안에 천진을 꽂고 피워야/비로소 새해를 새해로 살 수가 있다

〈언론인·다산 연구소 제공〉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NGO 칼럼



정수만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불순한 시각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확한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최근 자유북한군인연합은 기자회견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계엄군과 시민군 사이에 침투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들은 ‘광주 사태의 발단은 민주화봉기였지만 수많은 인명이 살상된 유혈적인 사건은 김정일 정권의 계획적인 테러행위’라고 주장했다. 당시 북한체제는 김정일이 아닌 김일성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들의 느닷없는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숨겨진 의도를 짐작케

부와 시민들은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을 오히려 계엄군에 인계하는 등 자체 치안 유지 과정에서 최소한 북한과 연계되어 악용될 소지가 있는 행동과 상황을 철저하게 경계하기도 했다.

당시 광주시민들의 항쟁이 5월 27일 계엄군의 재진입으로 무산된 이후 신군부세력들은 항쟁에 참여한 구속자와 부상자들에 대한 철저한 대공협의 조사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북한의 사주를 받은 불순분자들의 소행으로 몰고 가려 시도했지만 관련자들 어느 누구 하나 대공협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포기했다는 것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합동수사본부 관계 자료에 명백한 그 증거가

## 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려 하는가

한다.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기에 앞서 최소한 1980년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회생된 사망자들의 사망경위와 그 원인이 대부분 확인되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했다. 신원미상자들이 존재한다는 것 또한 이미 신원미상의 사망자들은 DNA검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됐고, 시민들에 의해 탈취된 장갑차 안에서 대량의 술병이 발견됐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당

시 5·18민주화운동을 폭도들의 난동으로 왜곡하려 했던 신군부세력들이 이를 활용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던 한미연합사는 자국의 대사관을 통해 당시 북한군의 아무런 움직임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전문을 수시로 타전했으며, 동해상에는 미군 항공모함 코럴시호와 미드웨이 2대가 대기상태에 있기도 했다.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항쟁지도

남아있다.

이미 두 전직 대통령이 광주학살의 책임자로 법정에 세워져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죄로 단죄됨으로써 그 성격이 규정되었음에도 5·18 상황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단순히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성격의 문제를 넘어 광주시민의 명예와 5·18 정신계승을 통해 민주화를 이루고자했던 국민의 명예마저 실추시키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 일반의 인식은 1988년 전국에 생중계된 국회의 5·18 정문회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역시 광주학살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세력들에 의해 양시양론의 시각으로 일관됐고 1990년 검찰의 5·18수사 또한 5·18진실규명에 한계를 보였다는 점에서 정확한 진실규명이 미흡했기 때문에 여전히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불순한 의도와 책동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회장

## 활약 동물 세상

## 호랑이 새끼 형제의 죽음



광주일보 독자들이라면 기억할 것이다. 지난 10월 우치동물원에 태어난 새끼 호랑이 한 쌍이 태어난 지 40여일만에 죽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다. 숨진 새끼 호랑이는 지난 2003년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동지를 끊긴 암컷 ‘아룡이’(4세)와 수컷 ‘사랑이’(4세)의 새끼들이다. 지난 9월 우치동물원에서 태어났다. 이들 새끼들은 1992년 남구 사직동물원 시대 마감 후 14년 만에 처음 태어난 호랑이였다.

일반 시민들은 그저 기사 내용을 보고 “안타깝다”라는 슬픔이나 “어떻게 된 일일까”라는 호기심 섞인 의문만 할 뿐 잊어버리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동물원 식구들은 다르다. 더 구나 14년만에 태어난 호랑이 새끼다. 오죽할까. 많이 슬퍼했고 그 기억도 오랫동안 남았다.

일반적으로 사설 동물원은 유희가 우선이기 때문에 호랑이를 바로 어미로부터 분리해 인공포유를 하여 기운 다음 몇 달 동안 흥보용으로 이용하다 가둬 놓는다.

반면 공공동물원은 자연스러운 동물

## 홈쇼핑 보험광고 기준정해 분쟁 소지 없게 해야

최근 일반 보험회사의 홈쇼핑을 통한 보험가입 광고를 보면 대다수 보험사들이 질병을 보장한다는 부분만 강조하는 반면 보험금의 지급 횟수 및 지급제한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광고 화면에 자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보장금액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금액만을 설명할 뿐 장애의 정도나 질병에 따른 보장금액의 차이에 대한 설명은 없다. 내용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모든 경우에 최고의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홈쇼핑 보험광고의 경우 보장내용과 병행해서 보장이 제한되는 경우 및 보장금액의 차이 등 반드시 설명해야 할 항목을

명문화하여 홈쇼핑 보험광고의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기준에 따른 보험광고를 접하는 소비자들은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보험가입 후 보험사와의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매번 가입할 때와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탈 때 금액이나 내용이 달라 분쟁이 생기는가 하면 보험사가 가입시킬 때 대도가 돌변해 가입자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애초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는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라 생각한다.

▲ 이현미·광주시 남구 백운동

## 자녀 납치방지 공갈사건 빈번, 유사피해 당하지 말아야

최근 순천·무안에서 자녀 납치를 빙자하여 무작위로 협박전화를 걸어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 할 것을 요구하는 납치방지 공갈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의 주요 수법은 제일 먼저 납치 대상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집중적으로 발신 또는 전송하여 전원을 끄도록 유도한다. 그런 다음 납치 대상자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 등을 납치하고 있으니 필요한 돈을 보내라고 협박하는 수법이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

녀를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하거나 아들(형제)도박 빚을 갚지 않으면 신체 일부를 손상케 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 아이 울음소리를 들려주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 어머니를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를 받게 되면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휴대폰으로 계신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 이러한 피해 사례를 알리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단단히 당부해야 할 것이다.

▲ 이재복·순천경찰서 금당지구대

## 시설

## 전남에 AI 불똥… 방역체계 재점검하라

충남에서 추가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불똥이 전남으로 번졌다. 전남도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확인된 충남 아산의 씨오리

농장과 관련이 있는 순천, 보성, 고흥, 장흥, 영암 등 5개 시·군의 농가 오리 7만5천여 마리를 긴급 살처분했다. 전남에서 AI로 오리 등을 살처분한 것은 지난 2003년 나주의 닭과 오리 29만여 마리를 처분한 이후 처음이다.

전남도는 예방적 차원에서 긴급 살처분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축산농가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긴급 살처분

조치는 오리의 생육 특성상 AI 감염의 조기진단이 쉽지 않은데다 해당 부화장에 대한 연락조사 결과, 분양 범위가 전국 8개 시·도에 달했다는 농림부의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충남과 비슷한 충북과 대전 등 관련 시·도에는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렸다. 전남도도 살처분과 함께 AI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12개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 청와대 ‘정치 게임’ 접고 민생 전념해야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평통 발언 이후 청와대와 고건 전 총리간 공방이 심상치 않다. 청와대는 고 전 총리가 노 대통령의 “실패한 인사” 발언에 대해 “자가 당착이며 자기 부정”이라고 점검·반박하고 나서자 연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고 전 총리를 비판하고 있다. 고 전 총리가 “청와대의 공세에 더 이상 대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 잠복상태에 들어갔지만 불씨가 쉽게 꺼질 것 같지는 않다.

대통령과 전직 총리의 공방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다. 당사자는 참여정부 초기 호흡을 맞춰 국정을 책임았고 운영했던 사람들이다. 당시의 국정이 잘못됐으면 대통령이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하고 총리도 일정 수준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그런데도 뒤늦게 서로 상대방의 잘못만을 지적하며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민생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내년 대선을 의식해 ‘정치 게임’을 벌여서는 국론은 더 분열되고 민생경제는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선에 ‘돌인’하는 여야 정치권에 민생과 경제가 눈에 들어 올리기 어렵다. 국민들은 먹고 살기조차 힘들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 無等鼓

‘지가 무슨 하일성이야?’

한국야구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 일본의 야구영웅 스즈키 이치로(시에이)를 쏘아 부친 김인식 감독의 말인데 올해 주요 스포츠뉴스를 정리하면서 떠오르는 기분 좋은 한마디다.

그 사연은 이렇다. 지난 2월 21일 이치로는 야구월드컵인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 대비한 훈련을 마친 뒤 “상대가(한국이) 앞으로 30년동안 일본에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전방지 연사를 내뱉었다. 일본 야구관은 물론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최고의 반열에 오른 그인이라 한국이 눈에 보일 리 없을 것이다. 일본

언론과 인터뷰 내용이 알려지자 한반도 가 들끓었다. 한국 야구팬들은 홍분했고 오만하기 짙어 없는 망언에 일본은 반드시 잡아야 할 분위기였다.

한국 선수들은 전의를 불태웠고 이승엽이 홈런으로 일본의 웃대를 보기좋게 꺾었다. 한국팀에 지고 나서 이치로는 “굴욕적인 일”이라고 화풀이를 하면서

/기현호 체육·여론매체부정 kihh@

## 光州日報

회장 許宰皓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禪榮 논설실장 申港榮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tbl